

벚꽃 아래 힐링음악회 ‘새봄’ 초대합니다

3월의 끝자락 광주전면에 흐드러지게 핀 벚꽃을 무대 삼아 아주 특별한 음악회가 열린다. 광주시 서구는 31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이틀간 벚꽃이 만개한 광주전 일대에서 주민과 함께 하는 힐링음악회 ‘새봄’을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음악회는 ‘새봄’을 주제로 코로나19로부터의 일상회복과 봄·여가·음악이 흐르는 문화도시 서구의 봄을 알리는 자리로 마련됐다. 서구는 벚꽃길 걷기, 야외피아노, 감성포토존, 동별 프로그램 및 온라인 이벤트 등 봄을 만끽할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했다.

31일 오후 4시 30분부터 광암고 하부·동천동 징검다리 간 왕복 2.4km구간에서 ‘한걸음

광주전변서 오늘부터 이틀간

스탬프 투어·벚꽃길 걷기 등

친환경·사회적경제 체험부스

가수 변진섭 특별초청 공연도

터 걷기 한마당’이 진행된다. 광천·유덕·동천동 3개동 벚꽃길을 걸으며 각 동의 부스와 메인 무대 등에서 BI가 각인된 스탬프를 찍는 스탬프 투어를 운영해 참여한 200명에게는 선물을 증정한다.

또 무대 주변에는 감성포토존 5개소를, 광주전 일원 둘다리 부근 2곳에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야외피아노도 설치된다.

또한 광천·유덕·동천동 주민들은 다음달 1일까지 다양한 체험 부스와 공연을 마련했다. 유덕동은 지역아동센터가 참여해 홍보활동과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광천동은 광주전 환경보호 및 수질 개선을 위한 EM흙공 던지기 행사와 함께 다양한 친환경 프로그램으로 구성한다. 동천동은 자가발전 자전거, 나만의 무드등 만들기, 풍선아트 등 즐길거리를 제공한다.

사회적 경제 체험부스도 함께 운영한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센터, 청년가게 등이

꽃다발, 팔찌 등 공예체험과 친환경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체험 부스를 운영한다.

또 색소폰 연주, K-POP 댄스 공연, 난타, 버스킹 공연, 어린이 합창공연, 오카리나공연, 관현악 공연 등 다양한 무대를 함께 즐길 수 있다.

체험 프로그램은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운영한다.

이후 오후 6시부터는 축제를 더욱 뜨겁게 달굴 무대가 이어진다.

광주전 광암고 하부 잔디밭에 마련된 주무대에서는 31일 오후 6시부터 루시드의 전자현악 공연, 다락의 뮤지컬 갈라쇼, 퓨전밴드 더블루 이어즈 공연이 이어진다. 또 ‘너에게로 또다

시’, ‘희망사항’ 등 명곡과 함께 발라드의 전설로 불리는 가수 변진섭이 특별출연한다.

서구는 이번 행사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서부경찰서의 협조를 받아 행사 기간 중 교통통제인력을 투입하고 안전요원과 구급차량을 현장에 배치하는 등 행사 안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나 새봄을 맞이하는 우리 주민들에게 행복한 추억을 선물하고자 음악회를 준비했다”며 “이번 주말 가족 또는 연인, 친구들이 함께 벚꽃길 걸으면서 힐링도 하고 품격 높은 공연도 즐기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혜린 기자

양동시장, 한국관광공사 ‘대표시장’ 선정

홍보·컨설팅 등 마케팅 지원

광주시 서구는 양동전통시장이 한국관광공사에서 선정한 ‘2023년 대표시장’으로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한국관광공사는 전통시장을 활용한 외국인 관광객 방문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국 33개 대표 전통시장을 발표했으며, 올해 광주에서는 양동전통시장과 대인시장이 선정됐다.

선정된 시장은 해외 홍보마케팅, 전통시장 방

한상품 프로모션 및 상품화 등 한국관광공사의 차별화된 홍보지원과 외국인 관광객 수용태세 기반 개선 컨설팅 등 적극적인 마케팅을 지원받게 된다.

양동전통시장은 100년 전통의 호남 최대의 시장으로 후덕한 인심의 표상이라고 불릴만큼 각양각색의 물산들이 산적해있고,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기아챔피언스필드 등 연계 관광지가 우수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전통시장 매출증대와 활

성화를 위해 지역 고객 유치를 뛰어넘는 대내외 경쟁력 강화에 주력할 것”이라며 “양동통맥축제 개최 등 양동전통시장이 광주 관광의 필수 요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는 양동전통시장 상권활성화사업과 양동건어물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등을 통해 먹거리·즐거거리·볼거리가 있는 상권을 조성, 전통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다.

/김혜린 기자

허태균 심리학 교수 서구 아카데미 강연

광주시 서구는 최근 사회심리학자 허태균 고려대학교 교수를 초청해 ‘대한민국을 만든 한국인의 마음: 진심’을 주제로 제104회 서구 아카데미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가끔은 제정신: 우리는 늘 착각속에 산다’, ‘어쩌다 한국인: 대한민국 사춘기 심리학’의 저자인 허 교수는 이날 현재의 대한민국을 만들어낸 한국인의 마음 분석을 통해 미래에 추구할 방향과 가치에 대한 강연을 진행했다.

서구는 4차 혁명시대에 융복합 학문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주민들이 인문·역사·철학·교양 등 다양한 영역을 접하며 인문학적 소양을 쌓고 문화 향유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매월 셋째 주 화요일 ‘명사 초청 아카데미’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사회심리학자 허태균 고려대학교 교수가 제104회 서구 아카데미에서 강연하고 있다.

/서구 제공

아카데미에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서구청 도서관과(360-7769)로 전화 신청하면 된다.

/김혜린 기자



‘공유서가:책 읽는 가게’ 참여업체 협약

광주시 서구는 최근 서구청 이음홀에서 ‘공유서가:책 읽는 가게’ 참여업체와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사진〉

서구는 언제 어디서나 책을 접할 수 있는 ‘내 곁에 도서관’ 조성을 위해 ‘공유서가:책 읽는 가게’ 지원사업을 추진,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지역 상인 및 주민들이 틈새시간을 활용해 머무르는 장소에서 독서를 할 수 있도록 가게 내에 도서 200여권을 지원하고 있다.

서구는 이번 협약을 통해 기존 ▲서광병원

▲미즈피아산후조리원 ▲아임이어 ▲정화카페 4곳에 이어 ▲글램데이 ▲커피아트 ▲김향숙 뷰티타운 ▲레프러 ▲어썸 ▲한결마취통증의학과의원 ▲다정의원 7개 업체를 추가 선정해 총 11개소에서 책 읽는 가게를 확대 운영한다.

서구는 공유서가에 도서, 현판, 북큐레이션 카드 등 다양한 독서정보서비스를 제공하며, 협약기관은 공유서가 운영·관리 및 독서문화 사업을 홍보할 예정이다.

/김혜린 기자

공직자 혁신정책 개발 연구모임 발대식

광주시 서구는 최근 서구청 들불홀에서 ‘공직자 혁신정책개발 연구모임’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서구는 학습·연구 문화 정착을 통한 공직자 전문성 및 문제해결 능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방식의 정책 개발로 구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7~8급 실무자로 구성된 ‘혁신어벤저스’와 경제, 환경, 복지 등 다양한 현안 과제를 주제로 한 정책개발 연구모임 9팀을 선발했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10팀 53명의 연구모임 회원들이 올해 활동방향과 연구주제 등을 공유했다.

이번 연구모임은 그동안 추진해온 공직자 정책개발과 달리 민선8기 공약 관련 주제를 선택하고 신규정책 및 국비사업 등 구체적인 정책을 발굴·제안하는데 중점을 뒀다.

이를 위해 서구는 국내 선진지 견학, 전문가 자문 등 여러 방면에서 연구모임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혜린 기자

부동산개발 | 분양마케팅 전문 디벨로퍼 그룹 하이누리



하이랜드(주)



(주)누리산업개발



(주)나로디엠씨



(주)하이누리

모두가 같은 길을 걸을때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찾습니다.
모두가 한곳을 바로보고 있을 때 새로운 시선으로 숨겨진 길을 찾아냅니다.
새로운 아이디어와 차별화된 접근과 전략으로 성공 분양으로 가는길,
부동산개발 | 분양마케팅 전문 그룹 하이누리가 해내고 있습니다.



회장 김 동 기

광주·전남 부동산학 박사호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부회장
한국부동산개발협회(KODA) 1대, 2대 호남지회장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이사
한국 부동산 분양마케팅협회 호남지회장
광주광역시·광주도시공사 자문위원
분양상담사 법정교육 전임강사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전임강사

www.hinuri.co.kr